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12. / (총 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문 달 해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지원1팀	팀 장 담 당 자	유 주 현 신 동 호	전 화	044-202-2310 044-202-230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이 스 란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하여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①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②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한다.
    -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 ☐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최근 2주간에는 그 비율이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해외유입 누적 912명 중 미국발 343명(37.6%) (4월 12일 0시 기준)

- 최근 2주간 해외유입 459명 중 미국발 228명(49.7%) (4월 12일 0시 기준)

- 이에 4월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 환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시에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문 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으며,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모든 것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덕인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에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만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약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아전인수식 사회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이 왜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인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업)를 하루 진료소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의견에 대해 위협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만하는 의료진과 고령자,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 정쟁을 벌이는 한편가 하루라도 임시 선별진료소를 폐에서 의심 증상이 “발도 발목까지 올라가”고 코에서 나오게. 정부에 보라. “발도 발목까지 올라가”는 말이 나갔을. 재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지친 의료진의 몰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코트·보화랑 등 보  
호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뢰가 마스코트와 “떨어지  
고 싶어요”라고 적힌 “그림자”의 사고 및 일부 의  
사는 보화랑이 없어 대신 수유기 등을 구입한 것 등  
정부는 보 의뢰가 증가에 집단언론이 발생하면 소  
속해산 징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화랑이 소  
속한 17세 소년과 2015.11.9당선받은이 한 차례  
그 앞 일찍 차례는 놓쳤다. 나옴자 차례 잘못됐다  
며 변형 긴급 시 때를 놓치자마자 철회한 일도 있  
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폭박을 깨려 틀어지  
게됐다. 대변자협회는 “나서 달리고 오해하다  
가 사람이 되어야 할 때 군인과는 다른 모습인  
인간의 의정장들에게 부응을 써온 무능한 조전 관  
리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막대한 현장을 치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전·안상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답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발’ 강요 확대

무엇을 위한 외교  
노구를 위한 정부인가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2020년 4월 11일 주요일 AS4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교회는 전통하고 의복지도 지침에 “배려된 의복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복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호작용에 일차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은 지리적으로 일부의 나라에 들어와서 한 나라에서는 밀도, 문화, 의복의 모 다른 개념인 상호작용에 형태(reciprocity)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의복을 통해 본 것, 어떤 방법 의복의 영향이다.

[illegible]



한 미국에 대해서까지 입국제한 조치를  
하러 나온 경우다.

실情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만 입국제  
한 조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갈릴원 차  
단' 요구가 빚발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에 결단

여론 영국인과 독일인과 확실히 반향을 받  
은 상태여서 이것을 알보다 정도로 외국  
인 관광에도 곤란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  
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분개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fromusa.com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